



## OECD : 65~69세 고용률,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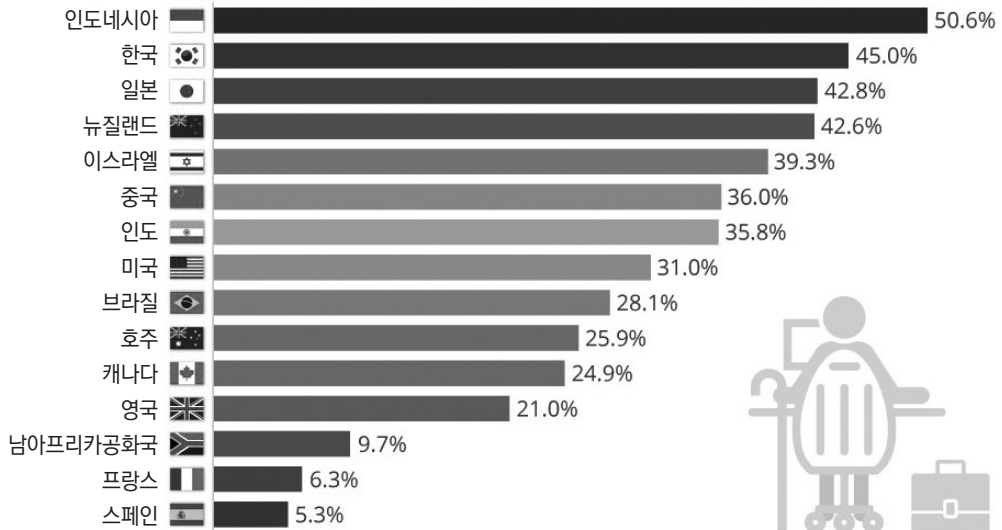
2017년 12월 5일 OECD가 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인도네시아가 50.6%로 가장 높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는 45%, 일본의 경우는 42.8%이다.

•출처 : 1) World Economic Forum Chart of the Day: The countries where people are working beyond 65, [https://](https://www.weforum.org/agenda/2017/12/chart-of-the-day-where-people-are-working-beyond-65?utm_content=buffer56e37&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www.oecd.org/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http://www.oecd.org/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

2)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보고서, <http://www.oecd.org/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

<주요국의 65~69세 연령층 고용률(2016년)>



@StatistaCharts Source: OECD





## EU : 유럽연합법원이 우버를 운송업체라고 판결하면서 우버에 대한 EU 규제 강화될 방침

유럽연합법원(ECJ)은 우버가 운송업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하면서 EU 내에서 택시업체로 엄격한 규제와 등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바르셀로나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영국을 비롯해 EU 전체에 적용된다. 항소는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The Guardian, 2017년 12월 20일자, “Uber to face stricter EU regulation after ECJ rules it is transport firm,”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dec/20/uber-european-court-of-justice-ruling-barcelona-taxi-drivers-ecj-eu>

## 미국 : 트럼프 정부, 레스토랑에서 서버가 받는 팁을 주방 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 논란

최근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팁을 받는 서버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요리사 간의 임금 격차이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는데, 고용주가 팁 전체를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존 법규정에서는 임금절도로 여겨질 수 있는 관행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사고 있다. 레스토랑 근로자 권익보호단체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ROC)의 위원장인 Saru Jayaraman는 이 규정은 “다른 직원들과 팁을 나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팁을 어떻게 할지 결정권을 갖게 되는 문제”라고 말

했다.

•출처 : The Washington Post, 2017년 12월 7일자, “The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allowing tip-pooling in restaurants Critics call it stealing workers’ wages”,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ood/wp/2017/12/07/the-trump-administration-proposes-allow-tip-pooling-in-restaurants-critics-call-it-stealing-workers-wages/?utm\\_term=.f2d663924c16](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ood/wp/2017/12/07/the-trump-administration-proposes-allow-tip-pooling-in-restaurants-critics-call-it-stealing-workers-wages/?utm_term=.f2d663924c16)

## 미국 : 시카고, 2년 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근로자의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낮아

시카고의 최저임금 조례(ordinance)는 2014년 12월 2일 통과되었고 2019년까지 시간당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일부의 인권운동가(legal rights activists)와 노동 전문가들은 시카고 시가 더 많은 직원들과 자원을 투입하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게 하고 해당 사업체들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시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다. 시

카고 시는 민간보안업체를 포함해서 약 100개의 직종을 최저임금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직종들은 일리노이 주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1달러가 아닌, 주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8.25달러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출처 : Chicago Tribune, 2017년 12월 3일자, “Chicago raised its minimum wage two years ago, but some still earn less. Here’s why”, <http://www.chicagotribune.com/business/ct-biz-minimum-wage-theft-1120-story.html>

## 스웨덴 : 실업률 하락했으나 지방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Arbeitsförmedlingen)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고용서비스센터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361,000명으로 전체 노동가능 인구의 7.4%에 해당하여 2016년 같은 달의 7.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자국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는 여전히 커, 자국민의 실업률은 3.9%,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22.1%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 분석실장 아니카 순덴

(Annika Sundén)은 몇몇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내외의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스웨덴 노동시장의 건실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스웨덴 내 실업자 수는 29,100명이며 이는 10년 중 최저 수준이었다.

고용서비스센터의 오칸 구스타프손(Håkan Gustavsson)은 스웨덴 라디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만이 고용에 있어 혜택을 누리고 있고 기타 산업은 인



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지방정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의 인력 부족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의료 및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출처 : sverigesradio, 2017년 11월 13일자, “Strong job market poses threat to local authorities”,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820464>

**스웨덴 : 2017년 11월 청년 실업자 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용서비스센터에 등록된 청년 실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기준, 스웨덴의 청년 실업자 수는 55,000명까지 떨어져 5년 전 같은 기간의 수치인 101,000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웨덴 내 16~24세 구간의 청년 구직자 중 14%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나 이 수치 역시 2012년 3사분기의 19.8%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2003년 이후 최저치이다.

고용서비스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90일 일자리 보장제도(90 day guarantee)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

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90일 이내에 청년 실업자들의 직업교육 및 고용 등의 활동을 돕는 이 제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이 노동활동을 재개하는 데 평균 80일가량이 소요되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질적 개선을 이루어 현재는 평균 5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The Local, 2017년 12월 4일자, ‘Record-low’ youth unemployment in Sweden, <https://www.thelocal.se/20171204/record-low-youth-unemployment-in-sweden>

**프랑스 : 파기원, 사내 종교사건에서 중립성 원칙을 인정하는 판결 내리**

2017년 11월 22일, 파기원 사회부는 사용자에 게 고객을 응대하는 자신의 직원에게 종교적 색채를 띠는 표식 착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했다. 다만 이러한 금지는 사내취업규칙 등에 의해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한 이후, 프랑스의 고용주들은 구체적

인 파기원의 지침을 기다려왔고, 이번 판결은 그 구체적인 규칙들을 제시했다.

- 출처 : 르몽드, 2017년 11월 23일자, “Fait religieux dans l’entreprise : le mode d’emploi de la Cour de Cassation”,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7/11/23/fait-religieux-dans-l-entreprise-le-mode-d-emploi-de-la-cour-de-cassation\\_5219189\\_823448.html](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7/11/23/fait-religieux-dans-l-entreprise-le-mode-d-emploi-de-la-cour-de-cassation_5219189_823448.html)

## 프랑스 :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9.88유로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노동부 장관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24% 인상한 시간당 9.88유로(한화 약 12,000원)로 발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498.47유로(한화 약 190만원)로 2017년에 비하면 18.2유로 증가한 수치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0.93% 인상되어 시간당 9.76유로, 월 1,480.27유로, 세후 월급은 1,151.50유로였다. 최저임금은 2014년도에 1%, 2012년도에 2% 가까이 인상되었고, 최저시급은 최근 10년 동안 1유로, 20년 동안 4유로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인상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어 온 결과였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 개입을 통해 자동상승분에 추가상승분을 별도로 더한 바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06년도에는 자동상승분인 2.75%에 0.3%의 추가상승분을, 2012년도 하반기에는 자동상승분인 1.4%에 0.6%를 추가상승분으로 더한 바 있다.

- 출처 : 1) 르피가로, 2017년 12월 15일자, “Le

smic mensuel frôlera les 1 500 euros en 2018”, <http://www.lefigaro.fr/conjoncture/2017/12/15/20002-20171215ARTFIG00356-le-smic-mensuel-frolera-les-1500-euros-en-2018.php>

- 2) 르파리지앵, 2017년 12월 5일자, “Le smic français est moins avantageux qu’en Allemagne et en Belgique”, <http://www.leparisien.fr/economie/le-smic-francais-moins-avantageux-qu-en-allemande-et-en-belgique-05-12-2017-7434903.php>

- 3) 리베라시옹, 2013년 12월 16일자, “Pas de coup de pouce pour le Smic en 2014”, [http://www.liberation.fr/futurs/2013/12/16/pas-de-coup-de-pouce-pour-le-smic-en-2014\\_966908](http://www.liberation.fr/futurs/2013/12/16/pas-de-coup-de-pouce-pour-le-smic-en-2014_966908)



## 베트남 : 실업보험상의 직업교육 참여율 저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근로국(Trung tâm Dịch vụ Việc làm: DVVL)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실업보험이 시행된 후 8년간 꾸준히 보험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 2017년 9월 기준 약 1,12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퇴직·사망연금, 산업재해, 질병·출산) 대비 실업보험 가입자는 약 85.6% 수준으로 지금까지 3,472,378명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약 370만 명의 근로자가 실업보험상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가운데 단지 114,956명의 근로자만이 실업보험상의 직업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실업등록이 늘어 2017년 10월 초 40,240명이 실업보험을 신청하여 이 중 40,079명이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2016년) 32,403명이 실업보험을 수급한 것에 비해 23.68%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약 3%의 근로자만이 실업보험상의 직업교육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업보험상 직업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직업교육의 낮은 유인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노이 지역수출섬유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다 회사의 운영난으로 동료 30명과 함께 지난 11월에 실직한 A씨의 경우 재직 당시 3년간 사회보

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비는 1개월에 1인 기준 1,000,000VND(약 50\$)으로 이 금액으로는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만 겨우 충당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B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을 당했을 당시 이를 오히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현대적인 회계전산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싶었지만 해당 교육비가 1개월에 수백만 동(VND)에 달해 직업교육 지원비를 훨씬 상회하는 데다가 교육비 지원 기한도 6개월에 불과해 교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실업수당 수급자에 비해 직업교육 등록 근로자의 비율이 극소수로 현저히 낮아 관계 당국이 적절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출처 : 바오전신, 2017년 11월 29일자, Lao động thất nghiệp ở Hà Nội chỉ có 3% đăng ký học nghề, <http://baodansinh.vn/lao-dong-that-nghiep-o-ha-noi-chi-co-3-dang-ky-hoc-ngho-hoc-ngho-d67473.html>